

과테말라 부패 스캔들과 대국민 반정부 시위

2015년 7월 13일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6월 18일, 과테말라 의회, 대통령에 부정 의혹 증언 통보

6월 11일, 과테말라 대법원, 의회의 대통령 탄핵에 청신호

5월 27일, Guatemala Central Bank Head Indicted as Crisis Deepens

[참고자료]

KVUE, Truthout, Foreign Policy, teleSUR, CSmonitor, La-hora, El Periódico 등

최근 몇 달간 연속적으로 일어난 과테말라 정부의 부패 스캔들은 과테말라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시민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페레즈 몰리나(Perez Molina)정권의 퇴각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고, 비리와 연루된 많은 고위관료들이 자리를 물러났다. 과테말라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의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페레즈 내각의 부패 스캔들

지난 4월, 과테말라의 국세청과 세관이 조세수익의 최소 12억 달러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La-linea”라 불리는 이 사건과 연루되었던 부통령은 지난 5월 8일 사임하였고, 이후로 국세청장, 환경부장관, 국가정보부 장관 등 페레즈 내각의 많은 고위관료들이 사임을 요구받거나 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국제위원회(CICIG)에 의해 과테말라 사회보장기구(IGSS)의 부패 스캔들이 밝혀졌다. IGSS 직원과 중앙은행의 대표를 포함한 정부 관리자들은 멕시코의 한 의약회사로부터 불법자금 1억5천만 달러를 받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치료에 대해 승인을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치료를 받은 13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이 사실이 알려진 후 17명 이상의 공무원이 체포되었다.

부패한 정권은 물러가라

과테말라 시티의 센트럴 플라자는 주말마다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지난 4월 국세청의 대규모 조세수익 횡령사건이 발생할 무렵부터 정부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더니 5월 16일 시위에는 이미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페레즈 몰리나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6월 10일 대통령 면책특권의 박탈여부를 의회가 투표로 결정하려는 청원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의 운명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테말라 대중의 지속적인 반정부 집회는 정치인, 학생, 기업, 토착민 등 다양한 집단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테말라의 정치와 역사가 한 단계 진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테말라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시작

부패가 만연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조세 횡령사건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과테말라의 경우 지난 5년간 연평균 3.5%의 GDP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의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많은 언론들은 이번 정부의 부패와 관련된 대국민 시위를 매우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무관심했던 도시의 중산층들이 거리로 나온 것에 주목하였으며, 정직한 정치인과 공무원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제뉴스기관인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의 기사에 의하면, 이번 과테말라 부패 스캔들과 대국민 반정부 시위는 과테말라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Deutsche Welle

- 이머릭스(EMERICs)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콘텐츠 자문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